

環境親和的 建築을 위한 基督敎的 思惟의 研究

A Study on the Christian Thought about Ecological Architecture

김 중 영*
Kim, Jongyoung

Abstract

Recently, global pollution reached the critical level. Thus, new paradigm for the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appear. This is so calle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cological Architecture proposed as a proposal for the paradigm. This research deals with Christian Thoughts about the Ecological Architecture planning.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ustainable development is new paradigm that is suitable for the Christian Integrity of Creation.

Second, Ecological Architecture will be better when the people have full of the Christian love.

키워드 : 환경친화적 건축, 지속가능한 개발, 기독교적 사유, 창조질서

Keywords : Ecological Architecture, Sustainable Development, Christian Thought, Integrity of Creation

1. 서론

오늘날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의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은 무분별한 개발, 도시화, 대량생산, 대량소비 그리고 대량폐기로 이어지는 인간들의 생활양식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것은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 온 과학과 기술 문명이 가져온 부정적인 결과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그간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게 기여해 온 것에 대해서는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생태계위기 등으로 대변되는 환경문제가 21세기 최대의 위기 중 하나로 인식됨으로서 그에 대한 비판

또한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과거 우리 사회의 가치관 내지는 세계관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인간-자연'의 사유¹⁾에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구환경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패러다임²⁾의 대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자연을 더 이상 무모한 개발이나 착취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과 공존공생하는 생명체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근래에 와서 건축분야에서 화두가

- 1) 사유(思惟)란 '대상을 두루 생각하는 일' 또는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작용'을 가리킨다.
- 2) 패러다임(paradigm):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규범 내지 가치의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사고의 개념적 틀을 가리킨다. 이것은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말한다.

* 정회원, 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건축(또는 생태건축)은 그러한 사유의 건축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의 수단이나 방법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환경친화적 건축을 표방하면서도 현실의 제반 여건이나 인식의 부족으로 종전보다 약간의 녹지를 더 조성한다거나 자연적인 요소를 좀 더 가미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정도로서도 상당한 가시적 효과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위기는 이러한 간단한 외상(外傷)의 처치로 치유될 상황이 아니다. 보다 근원적인 사유구조의 전환이 건축분야에서도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바탕을 둔 연구 역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될 수 있을 것인데 예컨대, 노·장(老·莊)사상, 풍수지리 등의 연구들도 그러한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 문제를 종교적인 측면, 특히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자하며 그 하나의 시도로서 '사유'의 문제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는 환경친화적 건축에 대한 기독교적 패러다임을 설정하기 위한 그 전단계의 연구로서 환경친화적 건축을 위한 사유가 보다 내면화되고 보편화될 수 있는 하나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는 기존의 '인간-자연'에 관한 사유들을 살펴보고 성서에서의 자연관을 분석한 후 기독교적 사유의 모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2. 환경친화적 건축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과제

환경친화적 건축이란 환경적으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토대로 계획된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생태마을을 예로 들면, 농촌의 자연생태계에 조화되는 공간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환경친화적으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산양식이나 생활양식까지도 환경친화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자손 대대로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개발양식은 이른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여기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1987년 <UN환경 및 개발 세계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도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개발"을 가리킨다. 이는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현재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개발을 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생태계는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개발은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자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체로 1960년대까지는 지역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보호는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개념으로서 개발을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포기해야하고 역으로 자연환경의 보전·보호를 위해서는 개발을 금지해야 한다는 상호배제론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두 가지가 모두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면서도 그 접근방법은 정반대인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개발과 자연환경의 보전·보호는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이것은 지구의 생명지원체계인 생태계의 안정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도 지속시킴으로서 자손 대대로 인류의 후생복지를 이룩할 수 있다는 개발 개념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은 개발과 보전의 서로 다른 목표의 결합이 아니라 수단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

3) 정희성, *오늘의 한국사회와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1999.
<http://www.ksdn.or.kr/resource>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개념 역시 그 바탕이 되는 ‘인간-자연’의 사유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보다 확고한 패러다임이 구축되지 않으면 그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이상론에 그치거나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음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인간-자연’에 관한 논의들을 재분석·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인간 - 자연’에 관한 논의

과학과 기술문명의 발달이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오염, 공해,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왔고 그 결과는 인간을 포함해서 전 생태계의 존립에 위협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는 과거 우리가 자연을 하나의 자원으로만 생각했고 그것이 갖는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 온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인간만이 특정한 존재라는 인식하에 자연의 파괴, 수탈에 대해서는 별다른 도덕적, 신앙적 죄의식을 갖지 않은데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구환경의 위기는 어떤 의미에선 가치의 위기이다. 생태파괴적으로 되어버린 과학과 기술문명.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은 역시 인간이며 그 시대를 지배해 온 사상적 배경을 재고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근본 생태론(Deep ecology)을 제창한 아르네 네스(Arne Naces)가 생태문제의 위기에는 이를 야기한 원인이 있으므로 이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⁴⁾. 여기서는 산업사회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자연환경에 대한 사유의 내용들을 개관하고 이를 토대

로 다음 단계의 논의들을 전개하고자 한다.

1) 기계론적 세계관

흔히 과학과 기술문명의 발원지로서 데카르트(Descartes)와 베이컨(F. Bacon)의 사상을 들게 된다. 이 사상들은 자연과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부품집합체로 보며 의식을 가진 인간은 필요에 따라 그것들을 지배하고 소유하며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기계론적 세계관인데 이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과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전 우주를 임의로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진 도덕적, 윤리적 가치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자연정복이라는 개념까지도 수용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식물과 동물은 내면 세계를 보유하지 못한 기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자연관이다⁵⁾. 이는 인간과 자연, 과학과 종교를 이원화하게 한 하나의 사상적 근거를 마련해 준 셈이다. 이것은 그 이전까지 ‘신-인간-자연’이라는 통합적인 사고에서 인간의 지성을 중심으로 한 사고로 전환시킴으로서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관은 자연이 가진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함으로써 오늘날의 환경위기와 생태계파괴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2) 생태론적 세계관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소위 생태론적 세계관이라 하겠는데 흔히 생태론적 세계관을 논할 때 그 하나의 사상적 배경으로서 하이데거(Heidegger.M)의 존재론을 들게 된다. 이는 종래의 세계관에 대한 하나의 반성으로서 인간과 자연의 근원적이고 존재론적인 유대성 회복을 추구한 것이라 하겠다. 그 후

4) 문순홍 편저, 생태학의 담론, pp.66-76. 여기서 집필자 아르네 네스(Arne Naess)는 외파적인 생태운동과 근본 생태운동을 다루고 있다. 그는 전자가 오염과 자원고갈 등에 대항하는 등 강력한 힘이 있지만 피상적이고 미봉책에 그치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아직 영향력은 미약하지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심귀득·안은수 역, 환경과 자연인식의 흐름, pp.188-195. 데카르트는 자연의 세계를 철저히 기계론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성장, 발전, 진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의 영향을 받은 한스 요나스(Hans Jonas)는 과거 인간중심의 전통윤리학에서 윤리학의 대상영역을 자연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환경윤리학을 제창하였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실존을 세계 전체와의 관계에서 조명하고자 했던 실존주의 철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전통 형이상학에서 망각된 자연의 의미를 일깨움으로서 하이데거의 존재론에 윤리학적 방향을 부여한 셈이다. 이 사상은 인간과 자연을 살아있는 생명공동체로 파악함으로써 생태학적 존재론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환경윤리학과 환경철학은 다소 상이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즉, 전자가 인간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면서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탐구하는데 큰 비중을 두는 반면, 후자는 인간과 자연은 동등하다는 일종의 세계관, 자연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생태학은 생물과 그 환경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생물학에서 하나의 중요한 분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구상의 제반 문제, 예컨대 인구팽창·식량부족·환경오염, 그리고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정치적 문제들이 대부분 생태학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자연’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서 한스 요나스(Hans Jonas)에 의해 20세기 ‘인간-자연’의 사유에 새로운 사상적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그를 기점으로 머레이 북친(M. Bookchin)은 사회생태학을, 아른 네스(Arne Naess)는 근본생태학(또는 심층생태학)을 제창함으로써 생태이론을 전개해 나갔고 이들의 이론을 중심으로 점차 생태학에 바탕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게 된 것이다. 머레이 북친은 오늘의 생태위기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세계를 상품화하는 시장논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인간이 지닌 지배속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가 주장한 사회생태론은 인간성을 자연의 맥락에 포함시키고 자연사적인 관점에서 이를 탐구하며 자연과 사

회사이의 뿌리 깊은 연속성을 회복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생태론적 세계관은 점차 모든 학문 분야로 확대되어 갔으며 범지구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UN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이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생태계의 위기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들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 다룬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바로 이러한 생태론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개발방식인 것이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이 지구환경에 부정적 부산물을 산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매도하고, 근대의 형이상학이 근대 과학과 기술의 생성모태가 되었다는 이유에서 형이상학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양자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재검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⁶⁾.

이상에서 <환경친화적 건축 - 지속가능한 개발 - 생태론적 세계관>으로 이어지는 사유의 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다음 장에서는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이러한 사유의 틀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4. 자연에 대한 기독교적 사유

기독교에서는 지구환경의 위기극복을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과제중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는 기독교적인 자연관을 먼저 성서에서 살펴보고 이어 환경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사유를 논하고자 한다.

4.1 성서의 자연관

자연환경에 대한 기록은 성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구약 창세기 1장에서 대표적인 몇 군데의 구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6) 계명대학교 철학연구소, 인간과 자연, p.235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6-28).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 1:31).

이상과 같은 창세기의 구절들은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들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루려는 중요한 키워드는 <창조하시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희 식물이 되리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구절이다. 자연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은 분명하다. 즉,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들이 예배할 신앙의 대상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 모든 생물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졌으며 인간은 그것들을 다스리며 지킬 사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즉, 사람은 자연환경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되었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여기서 정복하라는 것은 자연에 대한 공포와 숭배를 막고 인간에게 부여된 지위와 사명을 다할 것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오늘날에는 자연을 과학과 기술의 거대한 힘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면 원시시대에서는 인간을 자연의 위협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과제였던 것이다. 아울러 '너희 식물이 되리라'는 구절에서 인간이 자연에서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식물을 얻는 이상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식물을 얻는 그 이상의 인간의 과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구절에서 자연창조의 의도를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자연환경은 하나님이 만

들었으며 인간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주어진 자연환경을 잘 관리할 사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약성서 마태복음 6장에는 공중의 새, 백합화, 이슬모를 들끓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며 기른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는 자연은 인간이 과도한 욕심으로 착취하고 파괴하지만 않는다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환경으로 보전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연을 잘 보전하며 조화와 화해를 추구해야 할 인간이 왜 생태학적 위기의 주체가 되었는가?

4.2 환경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사유

현재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에 대한 인간의 형이상학적인 문제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자연을 하나의 객체화·대상화시켜 자원으로만 보는 관점이야말로 자연파괴의 출발점으로 본다. 역으로 자연을 인격체로 보지는 않지만 창조질서의 한 부분과 인류존재의 기반으로 '더불어 사는 존재'로 보고 소중히 가꾸고 보존하려는 자세에서 환경문제 해결의 단서를 찾으려고 하는 것 같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환경파괴 원인에 대한 논의

기독교에서 본 환경문제는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그 고유한 질서와 조화를 잃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영적인 문제로서 실존의 문제일 뿐 아니라 본질의 문제이다. 이것은 데카르트나 베이컨의 기계론적 세계관 이전에 인간 본연의 근원적인 곳에 자연파괴의 원인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환경파괴의 원인을 인간 심성의 타락에 있다고 본다. 즉,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공포, 교만, 탐욕, 쾌락 등이 그 심성을 지배하게 됨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본다.

첫째는 자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신격화하고 숭배하거나, 둘째는 자연의 정복자로 군림하여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이 그것이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이전에는 에덴동산에서와 같이 인간은 자연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었다. 인간과 자연의 공생과 조화가 깨어진 것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로부터 인간은 인간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사고가 인간의 사상을 지배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인간중심적이고 물질중심적인 가치관이 소위 과학과 기술문명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되었고 인간은 창조실서내에서의 본래 모습에서 일탈하여 자기 모순과 위기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과학이나 기술문명이 오늘날의 고도성장을 가져오게는 했지만 동시에 물질중심주의적 사고, 생존의미의 상실, 생태계 파괴, 실종의 위협 등을 야기 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 인간 심성을 지배하는 죄성이 인간중심적 세계관을 갖게 하고 탐욕으로 자연을 착취하고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다.

2) 환경파괴 치유에 대한 논의

성서는 그 해결점을 거듭난(born again)인간의 심성에서 찾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⁷⁾. 다른 생태학적 패러다임들이 인간의 이성애 호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성서에서 계명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냐고 묻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할 것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서 왜곡되고 파괴된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서 사랑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에게 한정되지 않는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분이 지으신 자연을 그분의 의도대로 보전하려고 할 것이며, 이웃 사랑은 그들의 생존과 직결된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

이다⁸⁾. 이것은 창조의 보전이 곧 신앙생활의 한 부분임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생태신학(Eco-Theology)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흐름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였고, 생태계 위기의 문제는 창조섭리와 함께 죄와 타락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또, 그것의 회복문제도 예수그리스도의 구속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며 진정한 자연사랑도 이러한 관계회복이 전제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자연계를 성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자연계 그 자체에 영이 들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5. 환경친화적 건축과 기독교적 사유

지금까지 ‘인간 - 자연’에 관한 논의로서 기계론적 세계관과 생태론적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유의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본 장에서는 이를 환경친화적 건축과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건축이라는 학문 자체가 여타 기초학문들을 바탕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 역시 여러 기초학문, 특히 환경철학, 환경윤리학, 환경신학 등에서 그 논거를 도입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 학문들은 생태철학, 생태윤리학, 생태신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5.1 <환경친화적 건축 - 지속가능한 개발 - 생태론적 세계관>의 사유구조

생태론적 세계관의 대두와 함께 건축, 도시분야에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환경친화적 건축이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생태론적 세계관은 크게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진다. 즉, 인간중심주의와 자연중심주의이다⁹⁾. 이는 환경윤리학에서 논점이

7) 신약성서. 로마서 8장 22절 참조

8) 맹용길, 자연환경과 윤리. 1994

되고 있는 자연의 권리(rights of nature)개념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서 온 것이다. 즉, 지금까지 인간에게 적용되던 권리의 개념을 인간 아닌 다른 존재에게까지 부여할 것인가? 부여한다면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 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있다. 즉, 생태론적 세계관을 수용하면서도 그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인간중심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경우, 인간들이 가진 도덕적 자율성과 도덕적 권리, 의무로서 현재의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해서 자연중심주의자들은 인간만이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연이나 다른 존재는 도구적 가치로 판단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인간의 이해 관심이나 필요에 따라 자연을 이용한다면 환경파괴는 시간적으로 지연될지는 몰라도 결과는 자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극단의 생태주의, 생명외경사상을 신봉하여 채식주의를 주장하는 경우까지도 나타난다. 이는 일부 종교의 사상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인간중심주의자들은 이에 강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즉, 인간이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생명체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생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희생은 자연의 순리요, 이치라는 것이다. 문제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배부름에 만족치 않고 탐욕으로 자연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논의의 초점을 건축적인 시각으로 환원해 보려고 한다. 물론 기초학문분야에서의 논의들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되지만 앞서 두 가지 견해 중에서 환경친화적 건축은 극단적인 생명외경사상보다는 인간중심의 사유에 더 부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건축행위는 어느

정도의 자연훼손을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훼손의 정도를 최소화하면서 개발할 것인가가 주제가 되어야지 생명외경사상에 치우쳐 개발 그 자체를 부정한다거나 극도로 제한한다면 앞서 예로 든 채식주의자의 극단적인 예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도 이러한 인간중심의 사유를 주장하는 측에서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 같다¹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환경친화적 건축 - 지속가능한 개발 - 생태론적 세계관>의 사유구조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근원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5.2 <환경친화적 건축 - 지속가능한 개발 - 생태론적 세계관 - 기독교적 창조질서>의 사유구조

서구의 그릇된 자연관에 의해 현재의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현상이 야기되었으므로 그 해법을 동양의 사상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동양적 사상과 전통이 생태론적 세계관에 부합되는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노·장사상이나 도교, 불교사상 등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¹¹⁾. 아울러 기독교의 생태신학자들 중에서는 소위 과정신학(process theology)을 통하여 '기독교 자연신학'을 열어가고 있다¹²⁾.

10) 앞의 책, p.79.

11) 앞의 책, pp.83-96. 여기서 저자는 생태주의와 동양의 사상이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동양의 사상적 전통이 환경친화적이라 하여 그 자체로서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에 대한 다른 학자의 논평에서는 도교 등 동양사상이 적극적·주체적으로 환경철학의 보편이념으로 수용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서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서구중심의 자연관에 대한 비판, 보완적 기능정도로서 유용하다고 보고 있다.

12) 과정신학자들 중 존 콕(John B. Cobb)은 우주와 자연을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창조의 계속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려 하고 있다. 또한 그리핀(D.Griffin)은 자연을 유기체로

9) 한국철학회, 기술문명에 대한 철학적 반성, 1998. p.75. 학자들에 따라서 인간중심주의와 자연중심주의로 나누기도 하고, 인간중심주의와 비인간중심주의로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사유들은 대체로 총론적인 입장(생태론적인 입장)에서는 견해가 거의 일치하나 각론적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서 4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독교적 자연관은 산업사회의 기계론적 세계관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가 하나님은 자연을 창조하여 조화와 질서를 부여하였으며 인간이 그 속에 공존하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청지기적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인데 반해서 후자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나머지 자연을 하나의 자원으로만 본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적 사유가 환경파괴의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일부의 시각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한 나머지 모든 생명체를 인간과 동등한 위치로 보고 극단의 생명외경사상 내지는 자연숭배사상을 취하는 측에 대해서 기독교는 단호히 거부하고 있다. 인간은 창조의 질서와 조화에 순응하면서 자연을 잘 보전할 사명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친화적 건축 - 지속 가능한 개발 - 생태론적 세계관 - 기독교적 창조질서>라는 사유구조가 성립 가능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여타 사상이나 종교에서도 유사한 사유구조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여기서 가장 근원에 창조의 질서를 둔 것은 모든 것의 출발을 하나님의 창조에 두는 기독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사유구조에서 보면, 환경친화적 건축이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자손대대로 쾌적한 건축·도시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는 건축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독교에서 전제하는 타락한 심성의 회개를 통한 생활태도, 즉, 탐욕을 줄이고 절제하며 이웃과 자연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러한 사유구조는 보다 완

이해하고 모든 물질은 자신 속에 작용인과 목적인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인과율적 역량으로 스스로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벽해질 것이며 실천 가능한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유구조라 하겠다.

6. 결론

현재의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의 원인이 과학과 기술문명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는 데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릇된 세계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데에도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과거 우리가 추구해왔던 건축도 그러한 세계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건축이나 도시는 그 속성상 어느 정도의 자연훼손이나 생태계의 파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간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그 당위성이나 부득이함을 항변할 수 있을 것이고 상당부분 설득력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위기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 따라서 건축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요청되는데 그 대안 중 하나가 환경친화적 건축이라고 전제하였다.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 건축이 보다 확고히 정착할 수 있는 의식 내지는 사상의 바탕을 탐구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의 사유를 살펴본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기독교적 환경 패러다임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적 연구인 것이다. 이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사회를 주도해 온 기계론적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을 이원화시킴으로서 개발주체인 인간이 그 대상인 자연을 얼마든지 개발하고 정복할 수 있는 사상적 바탕을 마련해 주었다. 그 결과는 문명의 발달이라는 긍정적인 면과 아울러 생태계의 파괴라는 부정적인 면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서 대두된 생태론적 세계관은 인간과 자연을 공존공생하는 유기체적 관계로 보려는 통합된 사고로서 현재로서는 지구환경의 위기에 대처할 가장 적합한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진다.

둘째, 환경친화적 건축은 생태론적 세계관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에 의해 보다 구체화된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건축 - 지속가능한 개발 - 생태론적 세계관>의 사유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태론적 세계관도 자연을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려는 총론적인 면에서는 일치하나 그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는 '극단의 제한'과 '일부 개발의 수용'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구조 내에서도 아직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근원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환경친화적 건축에 대한 기독교적인 사유는 <환경친화적 건축 - 지속가능한 개발 - 생태론적 세계관 - 기독교적 창조질서>로 구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몇 가지 기독교적인 사상을 전제로 하는데 창조론과 청지기론(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면서 창조의 의도대로 잘 유지할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 그리고 구속론이 그것이다. 즉, 인간 의 심성이 타락함으로써 탐욕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자연환경의 파괴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인간 심성의 회복을 통해 '인간-자연', '인간-인간', '인간-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환경문제의 근원적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환경친화적 건축의 문제를 기독교적인 사유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이는 앞으로 환경친화적 건축에 대한 기독교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하나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사유는 다른 종교에서나 사상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것은 인간 내면의 사유구조에서 도출된 것이므로 어떠한 외부적인 정책이나 규제에 의한 것보다 근원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며 환경친화적 건축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근거로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계명대학교 철학연구소편, 인간과 자연, 서광사, 1995
2. 길성호, 현대건축 사고론, 미건사, 1977
3. 김경재, 그리스도교의 자연과 신학
<http://ifp.or.kr/academy/enviro>
4. 김창락, 생태계의 위기와 성서신학적 반성
<http://theology.co.kr/theologian>
5. 김찬호 외 2인 공역, 도시와 사회이론, 풀빛, 1991
6.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환경친화형 주거단지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1996
7. 류형기, 신약주해(IV)
8. 맹용길, 자연환경과 윤리, 쿰란출판사, 1994
9. 맹용길, 현대사회와 생명윤리, 쿰란출판사, 1993
10. 문순홍편, 생태학의 담론, 솔출판사, 1999
11. 문순홍, 생태위기와 녹색의 대안, 나라사랑, 1992
12. 박이문, 자연·인간·언어, 철학과현실사, 1998
13. 손명원 역, 생태학적 환경관리, 대운, 1994
14. 심귀득·안은수역, 환경과 자연인식의 흐름, 고려원, 1992
15. 안동만역, 조경학, 보문당, 1999
16. 양병이,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생태계획 및 설계,
<http://srilang.ksdn.or.kr/resource>
17. 양병이, 지속가능한 설계, 환경논총 통권33권, 서울대 환경대학원, 1995
18. 이종관역, 자연에 관한 철학적 탐구, 철학과 현실사, 1994
19. 이창주역, 위기의 지구, 삶과 꿈, 1994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제4783호
20. 정희성, 오늘의 한국사회와 지속가능한 개발전략,
<http://www.ksdn.or.kr/resource>
21. 한국철학회, 기술문명에 대한 철학적 반성, 철학과현실사, 1998
22. 한규수, 지속가능한 개발,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 1997

김종영

23. Walter, Bob, Lois Arkin, Richard Crenshaw eds.,
Sustainable Cities, Eco-Home Media, Los Angeles.
1992